

국제시장 화재

〈위험관리부 제공〉

1. 일반 사항

- ◎ 건 물 명 : 국제시장 4공구 B동
- ◎ 소 재 지 : 부산직할시 중구 신창동
- ◎ 화재 일시 : '92년 4월 24일(금요일) 02 : 05
- ◎ 발화 위치 : 1층 ○○상회(타올 점포)부근
- ◎ 화재 원인 : 전기 누전(추정)

2. 시장 개요

부산 최대의 재래식 시장으로 상업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시장은 해방 직후 귀환 동포들이 생계 수단으로 적산 물품과 각종 군수물자 등을 노점상 형태로 취급하면서 출발, '48년 4월 12개 동의 목조 단층 건물이 세워지면서 시장 형태를 갖추었다.

'50년의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생한 1차 화재로 12동의 시장 목조 건물이 전소하는 등 6차례의 화재가 발생한 후인 지난 '68년 7,197㎡의 부지에 콘크리트 2층 건물 12개 동(연면적 12,800여㎡, 1,489개 점포)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각동 사이는 육교로 연결되어 있다.

화재가 발생한 4공구 B동은 연면적 1,272.4㎡(가건물 포함), 점포수 43개이며, 대부분 의류·침구류·타올류 등 가연성 상품을 취급하고 있었고, 옥상 가건물(창



고)에는 양말, 베개속의 왕겨 등이 산적되어 있었다.

소방과출소는 시장으로부터 500여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발화 건물의 전면 도로 폭이 16m, 기타 3면은 6m 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주간에는 노점상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에 장애가 많으며, 야간의 철시 후에도 소방통로가 건물 양측에 있는 돌출 차광막 때문에 통로가 좁아져 소화활동에 어려움이 컸으며, 건물 구조 및 내부 상품 등이 화재에 매우 취약하여 대형 화재를 면하기 어려웠다.

3. 화재 상황

화재는 02시 05분경 경비원 윤

명화(60세)가 순찰 도중에 갑자기 시장 1층쪽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 달려가 보니 1층 ○○상회와 JY상회 사이 통로측벽에 설치되어 있던 대형 분전함이 타고 있었고, ○○상회 등 2개 점포 안에도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고 한다.

목적자는 즉시 전원 연결 장치를 끊은 뒤 119(소방서)에 신고하였으나, 때마침 남측에서 불어닥친 강풍으로 인해 타올 및 침구류 등에 옮겨붙은 불길이 급속하게 전체 시장으로 번졌다.

이 분전함은 2층 건물 전체의 제어용으로서 시장 전면 도로를 지나는 전신주에 연결되어 있었다.

4. 연소 확대와 진화

시장 4공구 B동 1층에서 발생한 불은 타올류 등에 착화되면서 건물 내부로 확산되었으며, 마침 불이 닦친 강풍으로 급속하게 연소 확대되었다.

이는 시장 내부에 있는 중앙 통로(1층)가 2층으로 연결되어 있고, 2층은 환기창(삿을 지붕)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환기창 상부에 가건물(비닐 천막 건물)을 설치하여 창고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1층에서 발화된 불이 통로를 통하여 2층으로 확대되었으며, 2층 화염이 환기구를 통하여 옥상 창고로 연소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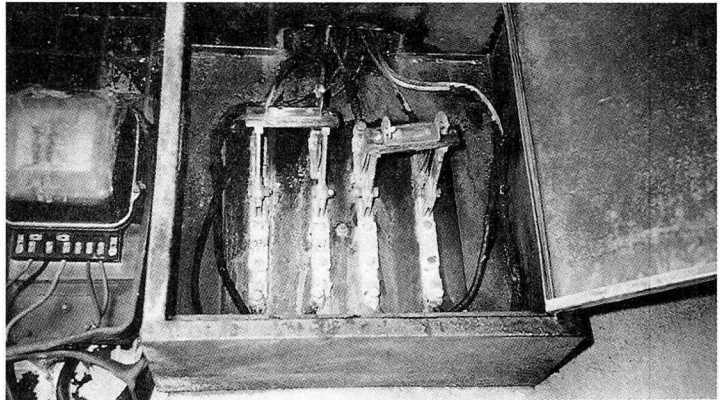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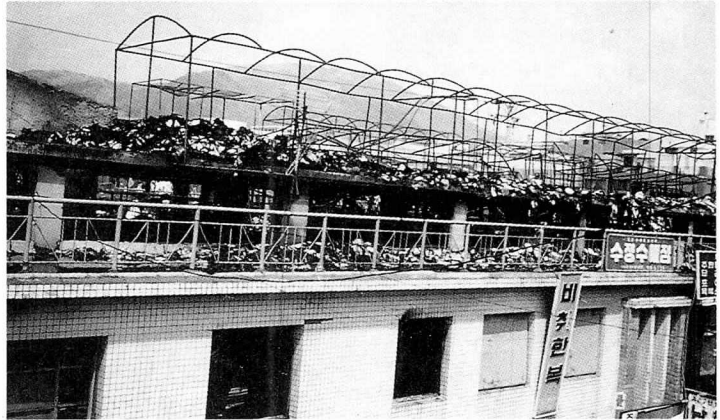
또한, 건물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인데다 방화구획이 불량하여 건물 전체로 급속히 연소 확대되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진화가 어려운 상태였다.

진화에 나선 소방관들은 섬유류가 타면서 뿜어내는 화염과 유독성 연기 때문에 현장 접근이 곤란해 부득이 인접 건물로의 연소 확대 방지에만 주력하였으며, 점포마다 설치된 셔터를 부수고 진입하는데 시간이 걸려, 발화 50분만인 02시 55분경에야 겨우 불길을 잡을 수 있었고, 06시경에 완전 진화하였다.

동원된 소방 장비는 펌프차 14대, 탱크차 14대, 방수탑차 1대, 기타 16대였으며, 동원된 인원은 소방관 230명, 의용소방관 25명, 경찰관 20명, 기타 16명이나 되었다.

5. 화재 이력 및 상황

국제시장의 불은 45년에 달하



는 시장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해방 직후 귀환 동포들이 생계 수단으로 노점상 형태로 출발한 이 시장은 '48년 4월 12개동의 목조 건물이 세워지면서 명실공히 시장 형태를 갖추었으나, 불과 2년여 만에 엄청난 화재를 만났다.

'50년 12월 24일에 발생한 1차 화재로 12동의 시장(목조 건물)이 전소되었고, 1차 화재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인 '52년 2월 13일, 2차 화재에 이어 '53년 1월 30일 3차 화재 때는 시장 주민 및 주변 일대 4,260체에 달하는 널판지 집포와 가옥까지 완전히 불태워 잿더미로 변해 버렸다.

당시 목로주점 춘향원의 실화에 의한 이 불로 1,400억 원에 달하

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대형 화재로 기록되었고 사망 20명, 부상 10명이 발생하고, 6,800여 세대 3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부산시가 590억원을 들여 재건한 국제시장은 '56년 12월 25일 4공구, '68년 1월 24일 5공구 화재 등 6차례의 화재가 잇달았으며, 지난 '68년에 콘크리트 2층상가 건물(9개 동)을 새로 짓고, 기존 3개 동을 포함하여 총 12개 동(연면적 12,800m²) 규모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후 '82년 2월 4일 불로 집포 1개가 불탄데 이어 이번 화재는 개장 이래 8번째로 발생한 화재가 되는 셈이다.

이번 화재에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1,272m², 상품(주단, 침구류, 타올류 등)등 30여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

6. 소방 시설의 설치 및 이용 상황

발화 건물내에 ABC분말 소화기 11대가 분산 비치되어 있었으나 셔터 등으로 잠긴 점포내에 있었고, 화재가 확산되어 있었으므로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였다.

또한, 건물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는 '91년 당 협회 안전점검시 도통시험 불량이지적되었으며, 화재 목격시 경보음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정상 작동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발화 건물과 인접한 위치인 2공구 및 5공구 전면 도로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동력소방펌프는 손실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시건 장치가 되어 있었고, 특히 발화 시간이 새벽 2시경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사용할 의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시장 전면 도로 지하에 매설된 약 200Ton의 소화용수설비 3개소(시장 소유 2개소, 공설 1개소)는 소방차에 급수하는 등 적절히 활용되었다.

7. 문제점 및 대책

가. 건물의 구조적인 결함

시장 내부 각 점포에 셔터가 설치되어 있고, 2층은 외창에 도난방지용 창살이 설치되어 있어 개구부를 통한 주수소화가 어려웠으며 천장, 간막이 등에 가연재(합판)를 사용한 점포가 많아 연소



확대를 조장하였다.

또한, 셔터가 가열되어 이를 파괴하고 진화 활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 점도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시장 내부의 셔터는 방범용으로 교체되도록 하고, 내장재는 불연재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방화구획 불량

이 시장은 '60년대 건축된 건물로서 건축법상 방화구획의 대상은 되지 않으나 과다한 상품(의류, 타올, 침구류 등)의 적재로 화재하중이 매우 높은 건물이다. 따라서 화재 하중을 감안한 방화구획(예: 층별구획 등)이 되었다면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다. 야간경비 및 소방 훈련 미흡

야간 경비원의 부족, 교육·훈련 미흡으로 최초 발화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소화기 및 동력소방펌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를 이용한 초기 진화를 시도하지 못하였으며, 최초 목격자의 신고 지연 등의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 경비원을 충원하여 야간 순찰시 2인 1조로 편성, 유사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소방에 대한 교육,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 비상시를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기타

이번 화재는 전기 배선 등의 노후, 정비·점검 불철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시장내 전기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한편, 시장내에 상품을 과다하게 적재하여 화재하중을 높이지 않도록 유도하고, 시장 1층의 각 점포에 설치된 차광막 등은 소화활동 및 소방차 진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철거하거나, 야간에는 건물 벽쪽에 접어 두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㉞